

도인이 심어 줬터 그늘을 제공한 회화나무



지정번호 의정부-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450년

수고 13m

흉고둘레 4,6m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00-35

37° 43' 24.16" N

127° 02' 15.39" E

회룡사 가는 곳에 있는 보호수(의정부-1) 회화나무는 개울(하천)과 인접한 아스팔트길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45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460cm, 밑동둘레는 560cm 정도이다. 회화나무는 원줄기가 5m 높이에서 굽은 가지가 갈라져 자라고 있으며, 가운데의 줄기는 나무높이 25m 정도까지 자란 적도 있으나 높이 9m 정도에서 부러진 후 현재의 높이가 되었다. 원줄기 높이 3m 정도까지는 충전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곳이 크게 비어 있어 어린이들이 드나들며 놀았다. 이곳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은 현재 줄기가 충전재로 채워져 막혀 있으나 굽은 줄기 속이 대부분 썩어 비어 있는 상태라며, 큰 바람이 불면 속이 빈 줄기가 꺾여 지나가는 사람을 덮칠까 봐 두렵단다. 이곳은 북한산 둘레길 15구간 안골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회화나무 식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날이었다. 어느 도인이 회룡사를 가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도인이 작은 개울을 지나고 나서 쉴 곳을 찾았다. 그러나 개울에 발을 담그는 등의 쉴 곳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도인은

회룡사를 갔다가 돌아온 후 개울 주변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도인은 회화나무가 크면 나무 그늘의 쉼터가 될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은 회화나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0년대 초였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천(개울)이 무너졌고, 그 때 하천과 인접하여 있던 회화나무도 큰 뿌리를 드러내면서 약간 기울어졌다. 드러난 뿌리가 특이하게도 2갈래로 갈라져 옆으로 뻗어 있었다. 뿌리의 굵기가 사람 몸뚱이만큼 굵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천을 복구하면서 드러난 회화나무 뿌리에 흙을 덮어 살려내었다. 현재 회화나무는 하천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 한편, 이곳은 회화나무가 심어지기 이전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오가던 길이었다.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이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 길을 따라 회룡사를 종종 방문하여 나라의 앞일을 논의하였다. 훗날 이성계가 왕이 되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신목으로 여겨 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기도드리고 있다.

